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에 관한 연구

김지인*

¹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과학부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oral sensitivity in Nursing students

Ji-In Kim¹*

¹Division of nursing scienc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연구 대상자는 일 지역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80명으로 자료 수집은 2015년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연구결과 도덕적 민감성은 생명윤리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 성향과 도덕적 민감성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전문직 자아개념의 확립을 위해 임상실습체계의 정비 및 구축이 필요하겠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s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oral sensitivity in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280 nursing students between March 3th 2015 and March 10th. 2015.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SPSS/WIN 18.0 program. Moral sensitivity significantly differed depending on one's experience in biomedical ethic education.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witnessed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as well a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moral sensitivity. Considering the results, the ways to develo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to ameliorate the current clinical training system are needed to firmly establish professional self-concept. Finally, I Suggest a study to develop and validate training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nursing students' moral sensitivity.

Keywords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oral sensitivity, Nursing ethics, Nursing student, Professional self-concep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환자에게 행해지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연구윤리문제, 진료비,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과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한 치료 유지 및 중단과 관련된 문제, 죽음의 과정에 연관된 문제와 같은 윤리적 문

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간호현장에서 간호사에게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능력이 요구된다[1]. 간호대학생이 윤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을 접하게 되는 것은 주로 간호사를 통해서이며, 그러한 상황을 통해 자신들이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기에 미약함을 느끼게 된다[2]. 간호업무 수행 시 윤리적 의사결정의 선행요인으로 밝혀진 도덕적 민감성은 윤

*Corresponding Author : Ji-In Kim(Ewha Womans Univ.)

Tel: +82-10-3639-6537 email: geene07@naver.com

Received June 8, 2015

Revised (1st June 29, 2015, 2nd August 11, 2015, 3rd September 4, 2015)

Accepted September 11, 2015

Published September 30, 2015

리적 결정의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이며,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개인적 자질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상황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준다[1].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합당한 행동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수반되며 이러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비판적 사고이다[3]. 비판적 사고는 추측보다는 사실과 근거에 기초한 판단을 할 의향을 가진 합리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로, 성향과 기술로 개념화 할 수 있다[4]. 비판적 사고성향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 업무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하려는 목적 하에 스스로 판단하는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적인 성향, 습관을 말하며, 비판적 사고 기술은 해석, 분석, 평가, 추론 등의 인지적 기술을 의미한다[5]. 개인이 훌륭한 비판적 사고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를 사용하려는 성향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므로[4], 비판적 사고 성향은 중요하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한 자질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시기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적 민감성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측정하고 이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 성향과 더불어 임상 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 활동하게 될 간호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가 지니고 있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이며 간호의 본질적 가치에 기초한 정신이라 할 수 있다[6]. 전문직 자아개념은 선행연구를 통해 비판적 사고성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져[7],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로서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한 자질로 포함하여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과 비판적 사고 성향의 향상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확립은 복잡해진 건강관리 현장에서의 윤리적 상황들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책임 있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8]. 따라서 도덕적 민감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해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도덕적 민감성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각각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하부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간호교육과 실습 현장에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이들의 향상을 위한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일 지역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임의 표출하였다. 표본수 산출을 위해 G power program (Ver3.1.9.2)으로 상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5로 산출한 결과 270명이 필요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300명의 학생을 표본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책임자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IRB 승인(1044348-20150130-HR-002-02)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3월 3일부터 2015년 3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목적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이름이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설문지를 시행하였다. 설문 응답시간은 10-15분가량 소요되었으며, 배부된 300부 중 288부를 회수하였고(회수율, 96.7%) 응답

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280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비판적 사고 성향

비판적 사고 성향 도구는 Yoon[9]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지적열정/호기심(5문항), 신중성(4문항), 자신감(4문항), 체계성(3문항), 지적공정성(4문항), 건전한 회의성(4문항), 객관성(3문항) 등의 7개 하위 영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7$ 이었다. 연구도구의 사용을 위해 개발자의 승인을 받았다.

2.3.2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도구는 Arthur[6]가 개발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도구(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SCNI)를 Sohng과 Noh[10]가 변안한 것을 간호 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Seo[1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4점 척도의 자가 보고 도구이다. 이 중 7문항은 부정적 문항으로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ohng과 Noh[1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 $\alpha=.87$ 이었다.

2.3.3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민감성 도구는 Lütznén 등[8]이 개발한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를 Han 등[12]이 변안 후 수정·보완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도덕적 민감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환자중심 간호(5문항), 전문적 책임(7문항), 갈등(5문항), 도덕적 의미(5문항), 선행(5문항)의 5개 하위 영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적으로 동의함’ 1점부터 ‘절대로 동의하지 않음’ 7점까지의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n 등[1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이었다. 연구도구의 사용을 위해 개발자의 승인을 받았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비판적 사고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은 t-test, ANOVA로 분석했다. 비판적 사고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Table 1. Degre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oral Sensitivity

(N=280)

Variable		Mean±SD	Ran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48±0.37	1~5
subconstructs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3.39±0.62	1~5
	Prudence	3.33±0.60	1~5
	Self-confidence	3.41±0.53	1~5
	Systematicity	3.12±0.61	1~5
	Intellectual fairness	3.80±0.46	1~5
	Healthy skepticism	3.49±0.56	1~5
	Objectivity	3.81±0.45	1~5
Professional self-concept		2.81±0.33	1~4
Moral sensitivity		4.98±0.53	1~7
subconstructs	Patient-oriented care	5.46±0.74	1~7
	Professional responsibility	5.43±0.67	1~7
	Conflict	4.89±0.79	1~7
	Moral meaning	4.68±0.67	1~7
	Benevolence	4.29±0.87	1~7

Table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oral Sensitiv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80)

Variable	Categories	n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Moral sensitivity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26	9.3	3.51±0.48	0.350		2.90±0.26	1.374		5.04±0.59	0.516	
	Female	254	90.7	3.48±0.35	(.729)		2.80±0.33	(.171)		4.98±0.53	(.606)	
Academic grade	1 ^a	59	21.1	3.45±0.34	1.671 (.174)		2.92±0.26	3.923 (.009)	a>c	4.82±0.56	2.634 (.050)	
	2 ^b	81	28.9	3.45±0.38			2.82±0.31			5.05±0.59		
	3 ^c	61	21.8	3.45±0.30			2.72±0.32			5.05±0.57		
	4 ^d	79	28.2	3.56±0.40			2.78±0.38			4.99±0.40		
Religion	Yes	114	40.7	3.47±0.37	-0.351		2.82±0.30	0.393		5.04±0.60	1.379	
	No	166	59.3	3.49±0.36	(.727)		2.80±0.35	(.695)		4.95±0.48	(.169)	
Patient or the dead in family member	Yes	73	26.1	3.49±0.36	0.145		2.83±0.33	0.616		4.96±0.49	-0.385	
	No	207	73.9	3.48±0.37	(.885)		2.80±0.33	(.539)		4.99±0.55	(.701)	
Economic status	High ^a	6	2.1	4.06±0.32	8.266 ($<.001$)	a>b,c	3.23±0.31	5.511 (.004)	a>b,c	5.16±0.50	0.898 (.406)	
	Medium ^b	239	85.4	3.47±0.36			2.81±0.32			4.99±0.52		
	Low ^c	35	12.5	3.44±0.37			2.75±0.37			4.89±0.59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143	51.1	3.52±0.37	1.946		2.77±0.36	-2.273		5.01±0.48	0.808	
	No	137	48.9	3.44±0.36	(.053)		2.86±0.29	(.024)		4.96±0.58	(.420)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satisfied ^a	29	10.4	3.66±0.39	5.154 (.006)	a>c	3.08±0.37	26.862 ($<.001$)	a>b>c	5.16±0.39	2.463 (.087)	
	Satisfied ^b	225	80.4	3.47±0.35			2.82±0.29			4.98±0.55		
	Unsatisfied ^c	26	9.3	3.37±0.37			2.48±0.31			4.86±0.50		
Experience of Biomedical ethic education	Yes	221	78.9	3.50±0.37	1.587		2.80±0.34	-1.338		5.03±0.51	2.832	
	No	59	21.1	3.41±0.35	(.114)		2.86±0.30	(.182)		4.81±0.57	(.005)	
Perceived level of moral standards	Confused	77	27.5	3.40±0.33	-2.283		2.66±0.30	-4.825		4.96±0.53	-0.511	
	Firm	203	72.5	3.51±0.36	(.023)		2.87±0.67	($<.001$)		4.99±0.53	(.610)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학생이 90.7%, 남학생이 9.3%이었으며, 1학년이 21.1%, 2학년 28.9%, 3학년 21.8%, 4학년 28.2%이었다. 종교는 없다 59.3%, 있다 40.7%이었으며, 가족 중 환자가 있거나 사망한 경우는 없다 73.9%, 있다 26.1%이었다. 경제적 상태는 상 2.1%, 중 85.4%, 하 12.5%이었으며 임상실습 경험 유무는 있다 51.1%, 없다 48.9%이었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매우 만족 10.4%, 만족 80.4%, 불만족 9.3%이었으며, 생명 윤리 교육 경험의 유무는 있다 78.9%, 없다 21.1%이었다.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 확립 정도에 대해서는 확고하다 72.5%, 혼동된다는 응답은 27.5%이었다[Table 2].

3.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전문직 자아 개념 및 도덕적 민감성

본 연구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48(±0.37)점이었으며, 하위 영역 별 점수는 지적열

정/호기심 3.39(±0.62)점, 신중성 3.33(±0.60)점, 자신감 3.41(±0.53)점, 체계성 3.12(±0.61)점, 지적공정성 3.80(±0.46)점, 건전한회의성 3.49(±0.56)점, 객관성 3.81(±0.45)점이었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평균 2.81(±0.33)점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민감성은 7점 만점에 4.98(±0.53)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 점수는 환자중심 간호 5.46(±0.74)점, 전문직 책임 5.43(±0.67)점, 갈등 4.89(±0.79)점, 도덕적 의미 4.68(±0.67)점, 선행 4.29(±0.87)점이었다[Table 1].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도덕적 민감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도덕적 민감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비판적 사고성향은 경제적 상태를 상 이라고 답한 학생이 중 과 하 라고 답한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F=8.266, p<.001), 간호학 전공 만족도가 매우 높은 학생이 불만족하는 학생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하게

Table 3. Correlation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oral Sensitivity (N=280)

Variabl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Moral Sensitivity
	r(p)	r(p)	r(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		
Professional Self-Concept	.469 ($<.001$)	1	
Moral Sensitivity	.132 (.028)	.055 (.361)	1

높았다($F=5.154$, $p=.006$).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 확립 정도가 확고한 학생이 혼동되는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283$, $p=.023$).

전문직 자아개념은 1학년이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3.923$, $p=.009$). 경제적 상태에서는 상 이라고 답한 학생이 중과 하 라고 답한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5.511$, $p=.004$).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이 있는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2.273$, $p=.024$),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학생, 만족하는 학생, 불만족하는 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공만족도를 매우 만족이라 답한 학생이 전문직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높았다($F=26.862$, $p<.001$).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 확립 정도가 확고한 학생이 혼동되는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4.825$, $p<.001$).

도덕적 민감성은 생명윤리교육 경험 여부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832$, $p=.005$).

3.4 비판적 사고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도덕적 민감성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도덕적 민감성 간의 상관관계는 비판적 사고 성향과 전문직 자아개념($r=.469$, $p<.001$), 비판적 사고 성향과 도덕적 민감성($r=.132$, $p=.02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도덕적 민감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나아가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간호교육 중재개발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은 5점 만점에 평

균 3.48점 이었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본 연구 대상자와 같이 통합교과과정을 시행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n[13]의 연구에서는 평균 3.57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통합교과과정을 시행하지 않는 Park과 Kim[14]의 연구에서는 평균 3.58점으로 나타나 통합교과과정을 시행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의 향상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과과정 뿐 아니라 교내, 교외의 실습을 통해 간호현장에서와 같은 유사한 상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겠다. 또한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평균 2.81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Shin과 Cho[7]의 연구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지역의 문화적인 가치관의 차이, 의료체계의 차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7]. 본 연구 대상자는 일 지역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로 간호사에 대한 전문직 인식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일 지역사회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은 7점 만점에 4.98점 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은 평균 5.13로[15] 본 연구 대상자보다 높았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51점[5], 5.07점[16]로 나타나 동일한 도구를 썼지만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다수의 반복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상태가 높을수록, 간호학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 확립 정도가 확고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상태가

높다고 응답을 한 경우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결과는 이전의 다양한 경험과 여유로운 생활이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간호학 전공에 만족한 경우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은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13,14]. 간호학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간호학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배움에 있어 더 적극일 것 이므로 그에 따라 사고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비판적 사고 성향이 강할 것이라 여겨진다. 도덕적 가치관 확고할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은 이전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17], 이는 자신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로 여겨진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1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고, 경제적 상태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이 있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에서,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 확립 정도가 확고한 학생이 혼동되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3학년보다 1학년 학생이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은 Lim과 Park[18]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로 이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없는 학생이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임상실습 이전에 학생들이 가졌던 전문직 간호사에 대한 자아상이 직접 현장을 경험하는 임상실습 이후 더 낮아졌다는 결과를 볼 때 연구대상자들이 실습을 나가는 기관과 현장에서 일하는 선배 간호사들의 모습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다. 간호대학생들은 실습 경험을 통해 간호현장을 접하고 선배간호사들의 모습을 통해 역할정체감을 형성한다[7].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현장에서의 실습경험이 장려되어야 하며, 실습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학습과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습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간호학의 이론과 실제 임상의 차이에 혼돈을 느끼고, 경제적 상태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은 간호학 전공 선택 이전의 다양한 경험과 충분한 고민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전의 수준 높은 의료행위나 간호를 제공받았던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덕적 가치관 확립 정도가 확고할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결과는 더 나아가 전문직 자아개념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8]이라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은 생명윤리교육 경험 여부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높았다. 도덕적 민감성은 간호사가 대상자를 둘러싼 간호 상황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행동을 취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며, 직관, 실무경험, 전후맥락의 지식의 통합과 관련 된다[19]. 이러한 올바른 의식형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 정의 도덕적 옳음에 대한 판단력은 타고나기보다 교육에 의해 형성되므로[20] 도덕적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명윤리교육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도덕적 민감성 간의 상관관계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 성향과 도덕적 민감성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양의 상관관계는 Shin과 Cho[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Kim, Park과 Choi[8]의 연구에서는 도덕적 민감성과 비판적 사고 성향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Ahn과 Yeom[17]의 연구에서 도덕적 민감성과 비판적 사고 성향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윤리적 지각은 합리적 지식 뿐 아니라 이타적인 개인의 진실성으로부터 형성되는 역량으로[21], 일치하지 않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로 미루어보아 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일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도덕적 민감성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일 지역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80명으로 자료 수집은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5년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을 시행했다.

연구결과 비판적 사고 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48점,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평균 2.81점, 도덕적 민감성은 7점 만점에 4.98점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상태가 높을수록, 간호학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도

덕적 가치관 확립 정도가 확고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1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고, 경제적 상태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이 있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에서,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 확립 정도가 확고한 학생이 혼동되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덕적 민감성은 생명윤리교육 경험 여부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높았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 성향과 도덕적 민감성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향후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도덕적 민감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며, 전문직 자아개념의 확립을 위해 임상실습체계의 정비 및 구축이 필요하겠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

- [1] K. Lützn, V. Dahlqvist, S. Eriksson, et al., "Developing the concept of moral sensitivity in health care practice", *Nursing Ethics*, Vol.13, No.2, pp. 187-196, 2006.
DOI: <http://dx.doi.org/10.1191/0969733006ne837oa>
- [2] M. E. Cameron, M. Schaffer, H. Park,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ethical problems and use of ethical decision-making models", *Nursing Ethics*, Vol.8, No.5, pp. 432-447, 2001.
DOI: <http://dx.doi.org/10.1177/096973300100800507>
- [3] M. S. You, H. S. Park,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bioethics awarenes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f nurses", *Bioethics*, Vol.11, No.1, pp. 51-60, 2010.
- [4] B. K. Scheffer, M. G. A. Rubenfeld, "A consensus statement on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9, No.8, pp. 352-359, 2000.
- [5] P. A. Facione, N. C. Facione, C. A. Sanchez,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s a measure of competent clinical judgement : The development of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3, No.8, pp. 345-350, 1994.
- [6] D. Arthur,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Newcastle, 1990.
- [7] G. A. Shin, B. H. Cho,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9, No.1, pp. 46-56, 2012.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1.046>
- [8] E. A. Kim, H. Y. Park, S. E. Choi, "The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17, No.2, pp. 144-158, 2014.
- [9]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2004.
- [10] Y. Sohng, C. H. Noh,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Science*, Vol.26, No.1, pp. 94-106, 1996.
- [11] W. H. Seo,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07.
- [12] S. S. Han, J. Kim, Y. S. Kim, S. Ahn,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Nursing Ethics*, Vol.17, No.1, pp. 99-105, 2010.
DOI: <http://dx.doi.org/10.1177/0969733009349993>
- [13] J. Yoon,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a school applying integrated nursing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4, No.2, pp. 159-166, 2008.
- [14] I. S. Park, R.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 No.4, pp. 105-117, 2013.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3.7.4.105>
- [15] H. R. Kim, S. H. Ahn, "Moral sensitivity and Moral distress among korean hospital nurse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13, No.4, pp. 321-336, 2010.
- [16] M. H. Park, D. Kjervilk, J. Creandell, M. H. Oermann, "The relationship of ethics education to moral sensitivity and moral reason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Nursing Ethics*, Vol.19, No.4, pp. 568-580, 2012.
DOI: <http://dx.doi.org/10.1177/0969733011433922>

- [17] S. H. Ahn, H. A. Yeom,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Vol.20, No.5, pp. 482-489, 2014.
DOI: <http://dx.doi.org/10.1111/ijn.12185>
- [18] M. H. Lim, C. S. Park,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7, pp. 4423-4431,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7.4423>
- [19] K. Lützn, C. Nordin, "Structuring moral meaning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Vol.7, No.3, pp. 175-180, 1993.
DOI: <http://dx.doi.org/10.1111/j.1471-6712.1993.tb00196.x>
- [20] H. S. Jung, H. J. Park, I. S. Jang,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based upon CEDA debates on moral judgement and ethical valu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2, pp. 248-258,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248>
- [21] C. Gastmans, "A fundamental ethical approach to nursing: some proposals for ethics education", Nursing Ethics. Vol.9, No.5, pp. 494-507, 2002.
DOI: <http://dx.doi.org/10.1191/0969733002ne539oa>
- [22] K. Lützn, M. Evertzon, C. Nordin, "Moral sensitivity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Nursing Ethics, Vol.4, No.6, pp. 472-382, 1997.
DOI: <http://dx.doi.org/10.1177/096973309700400604>

김 지 인(Ji-In Kim)

[정회원]



- 201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 2014년 9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암환자, 이식환자 간호